

- 2009 전력홍보인 아카데미 성료 -

- 전력 · 에너지 업계 홍보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가 전기 · 에너지업계 상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홍보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주최하는 '2009 전력홍보인 아카데미'가 개최됐다.

6월 24~25일 이틀간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백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로, 국내 전기 · 에너지 관련 업 · 단체 홍보담당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해 전기 · 에너지 분야의 홍보인프라 확대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한전기협회 박천진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기에너지 발전역사 이면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전기에너지업계 홍보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 치하하면서, 급변하는 전기에너지업계 뉴 패러다임에 대응한 홍보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언론홍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명도를 겸비한 외부 강사진을 초빙,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중점을 둔 강연으로 펼쳐졌다.

발표 주제는 '홍보의 트렌드와 변화'(이재국 피알원 미디어 대표), '기업-네티즌 간 커뮤니케이션 전

략(강미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발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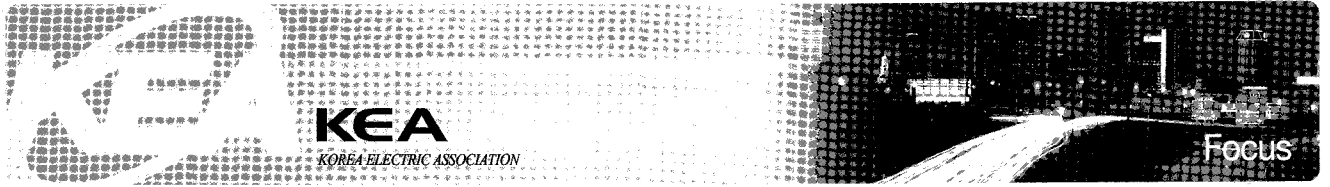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부대행사로 원자력문화재단의 후원 하에 영광원자력발전소 시찰을 병행함으로써 전기 문화 이해확산을 제고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제공하였다.

대한전기협회는 행사 피드백을 통한 개선 의견 반영 등으로 '전력홍보인 아카데미'를 더욱 알찬 전기 ·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KEPIC,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KOLAS) 적용 -

KEPIC이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적용규격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이번 KOLAS 인정에서 발전, 원자력 분야에 대해 KEPIC END 1100(전기1급 기기검증)의 적용을 골자로 하여 KOLAS 인정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KEPIC은 원자력 품질인증이나 원전 설계, 운전등에 적용되는 한계를 뛰어넘어 시험기관 인증인 KOLAS에도 그 적용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기관과 공인성적서를 상호수용하고 있는 관점에서 KEPIC의 국제적용을 실현하게 되었다.

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의미하며 KOLAS는 아시아태평양 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 24개국 36개 시험기관 인정기구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45개국 57개 시험인정기구와 공인성적서를 상호 수용하고 있다.

- 중국 전력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검토서 개발 과제 공청회 -

대한전기협회는 6월 4일 중구 명동 소재 동보성에

서 '중국전력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검토서 개발 과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 전력기자재 생산기업이 중국 전력시장에 진출할 때 손실비용의 최소화와 수출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동향과 전력설비 제품인증 그리고 구매시스템과 기술검토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 시연했다.

또한 중국의 전력시장 조사와 차단기 및 개폐장치, 변압기류의 중국규격 번역 및 기술검토서 개발, 전력용어집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된 관련 결과물을 중국 시장진출 기업과 진출희망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과 유관 업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